

1 1·2회 올림픽 맨 금메달 없었다 2 금메달은 도금이다

제3회 올림픽부터 금·은·동메달 첫 등장
순도 92.5% 이상 은에 6g 이상 금 도금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 최대 2690억원
도너츠·옥·운석·소리나는 메달 등 화제

올림픽의 상징은 비둘기와 월계수, 그리고 메달 세리머니다.

조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올림픽 시상대의 한가운데 오르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선수가 4년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한다. 그 노력과 열망, 헌신, 절제의 가치를 알기에 수상자들에게는 영광의 징표로 메달을 준다.

무게 몇 백 그램의 메달이 품은 가치는 그래서 크기 이상이고 단순히 숫자로 따질 수 없다. 계산 불가다. 올림픽의 상징인 메달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고대올림픽 월계수관의 가치는 메달로 이어지다

근대올림픽의 모델이 된 고대올림픽은 우승자에게 올리브나무 월계관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물질적인 이득은 없었다. 오직 명예만 있을 뿐이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올림픽이 시작됐을 때 우승자는 올리브 월계관을 받았다. 고대 올림픽과도 정신의 계승이었다. 이와 함께 받은 것이 메달이다. 당시 우승자에게는 은메달과 우승증서를, 2위에게는 동메달을 줬다. 3위는 아무 것도 없었다. 왜 은과 동메달이었을까? 이는 그리스 신화와 이유가 있다. 신화에 따르면 금과 은, 청동은 세 가지 인간의 시대를 뜻한다. 금은 인간이 신과 함께 살았던 시대, 은은 젊음이 천 년까지 지속되는 시대, 청동은 영웅의 시대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 우승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은메달이어야 했다. 2위를 한 스포츠 영웅에게는 동메달을 줬다. 그리스인들은 제1회 대회 이후 올림픽의 그리스 영구 개최를 주장했다. 만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도 올림픽 메달은 은과 동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지를 달리해서 열리는 것이 전통이다. 4년 뒤인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 대회 때는 그리스의 전통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었다. 메달이 사라졌다. 우승자는 대신 트로피를 받았다.

●금·은·동메달이 등장한 세인트루이스 대회

1904년 제3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등장했다.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은 직경 30cm로 목에 걸기 힘들 정도로 컸다. 정면에 '세계박람회 미국 세인트루이스'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올림픽은 엑스포의 부속 행사로 대접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디자인이다. 뒷면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새겨 미국에서 대회가 열렸음을 알렸다.

이후 1, 2, 3위에게 금, 은, 동메달을 주는 전통은 이어졌지만 문제가 있었다. 대회마다 개최국



10일 평창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임효준(사진 가운데)이 다음날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빅토리 세리머니에서 금메달을 받은 뒤 은메달 크네흐트(사진 왼쪽), 동메달 엘리스 트라토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자용 포즈로 깨물고 있는 금메달은 금으로 도금한 은메달이다. 이로 깨물어도 흠집이 생기지는 않는다.

가에 따라 메달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침내 올림픽 메달 규정이 나온다.

1928년 제9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메달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됐다. 이에 따르면 메달에는 반드시 승리의 여신 니케가 로마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월계관을 들어올린 모습이 들어가야 했다. 대회 개최장소와 연도도 필수 항목이다. IOC는 크기도 정했다. 메달의 지름은 6cm 이상,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 규정은 관례로 이어지면서 잘 지켜졌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개최국들의 불만이 나왔다. 개최국을 상징할만한 것을 메달에 넣고 싶은데 간간히 IOC가 허락해주지 않았다. 힘겨루기는 계속됐다.

마침내 IOC가 한 발 물러섰다. 1972년 뮌헨 하계올림픽 때부터 메달의 앞면은 표준디자인을 따르고 뒷면은 개최국의 특징을 담은 디자인을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88서울올림픽 때는 뒷면에 월계수를 문 비둘기가 들어갔다. 대회의 모토가 평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달이다. 이와

함께 태극무늬를 응용한 서울올림픽 엠블럼도 넣어 서울과 88을 기억하게 했다.

●IOC와 개최국 사이에 올림픽 메달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

메달과 관련한 개최국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때부터 앞면 디자인에도 일부 변형이 허용됐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새로운 표준디자인이 도입됐다. 월계관을 든 니케의 배경을 로마 콜로세움에서 아테네 파나티나이크 경기장으로 바꿨다. 고대올림픽 정신을 생각한다면 변경은 합당했다. 올림픽 메달의 디자인은 이처럼 대회마다 조금씩 변화했지만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강제규정이 없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의 메달은 대부분 동계올림픽에서 나왔다.

●올림픽 메달 디자인 결정 과정과 제작 규정

메달 디자인은 개최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직위원회가 디자인 업체를 공개모집한 뒤 여기서 선정된 도안을 IOC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받는다. 메달제작은 주로 개최국의 화폐공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금메달은 100% 금이

아니다. 은에 금을 도금한 것이다. 이것도 IOC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순도 92.5% 이상의 은에 6g이상의 금을 도금해야 한다. 은메달은 순도 92.5%의 은으로 제작하고 동메달은 순도 97% 이상의 구리가 주 재료다. 실제 제작 때는 순도 99.9% 이상의 은을 쓴다. 그래서 메달의 제작단가는 제작 당시의 국제 금은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그레봐야 수백만원이 넘지 않지만 유명 경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메달 1개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최소 1950억 원에서 최대 2690억 원으로 엄청나다.

●역대 가장 창조적이고 화제를 모았던 올림픽 메달은

2006년 토리노 동계대회 메달은 도넛 모양이어서 화제가 됐다. 가운데 구멍은 광장을 상징했다.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메달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울퉁불퉁한 모양이었고, 1984년 사 라예보 대회의 메달은 둥근 메달이 큰 사각형 틀에 갇힌 형태였다.

소재도 다양해졌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메달은 뒷면에 백옥, 청백옥, 청옥을 넣어 화제가 됐다. 옥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폐전자제품에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



토리노동계올림픽 도너츠 모양 메달

10일 평창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임효준(사진 가운데)이 다음날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빅토리 세리머니에서 금메달을 받은 뒤 은메달 크네흐트(사진 왼쪽), 동메달 엘리스 트라토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자용 포즈로 깨물고 있는 금메달은 금으로 도금한 은메달이다. 이로 깨물어도 흠집이 생기지는 않는다.

서 나온 금, 은, 동을 재활용 한 친환경 올림픽메달이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조각을 넣은 7개의 운석메달을 따로 만들어 화제였다.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은 역대급으로 혹평을 받은 대회지만 패럴림픽 메달만큼 찬사가 멈추지 않았다. 사상 처음으로 소리 메달이 등장했다. 패럴림픽 메달에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점자를 새겨 넣는데 리우는 메달에 각각 28개, 20개, 16개의 쇠 구슬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했다. 물론 금메달이 가장 큰 소리가 난다.

●알아두면 좋은 메달 세리머니 관련 잡학

선수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전통은 1960년 로마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 금·은·동 메달의 순위에 따라 높낮이가 다른 메달 단상은 1932년 제10회 미국 LA올림픽 때 처음 도입됐다. 2006년 토리노 동계대회 때부터는 처음으로 세리머니가 이원화됐다. 경기 끝나자마자 하는 메뉴 세리머니와 메달을 주는 빅토리 세리머니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번 평창 대회는 그 관례에 따라 세리머니를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겁 없는 미국의 10대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위)이 13일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벌어진 스노보드 여자 프리스타일 3차 시기에서 98.25점으로 금메달을 확정해 두 손으로 머리 위로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10대 스노보드 선수 레드먼드 제라드는 11일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열린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생조기를 몸에 두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평창 | 김종현 기자·신화뉴스

스노보드 10대들의 반란...비결은 '배짱'

클로이 김·제라드 금메달에 미국 흥분
겁 없이 모험에 가까운 묘기 높은 점수
13세 무라세 코코모 세계 최고 기량

클로이 김(18)이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이파이프에서 정상에 오르자 미국 언론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금이 다른 기량으로 우승한 천재소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망하고 있다. SNS에서도 난리가 났다. 30분 만에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평창 최고의 인기스타로 등극했다.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레드먼드 제라드는 클로이 김과 동갑이다. 클로이 김이 2000년 4월23일생이고, 제라드는 2000년 6월29일생이다. 둘은 역대 스노보드 남녀 최연소 우승자다.

그야말로 '10대들의 반란'이다. 처음 마주하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선 그들의 천재성이 부각된다. 한편으로는 스노보드에서 어린 선수

가 더 잘 타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의 인터넷엔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스키 전문가 에드 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확실히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선수는 어린 선수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겁 없이 스노보드를 타는 어린 선수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노보드에서는 특히 모험에 가까운 묘기를 해야 높은 점수를 얻는다. 결국 부상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선수보다 그걸 개의치 않고 도전하는 어린 선수들이 점수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

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몇몇 선수의 나이는 13세 정도다. 이들은 환경만 갖춰진다면 놀라운 기록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리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13세 소녀 무라세 코코모가 세계 최고의 스노보더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기량만 놓고 보면 올림픽에서 좋

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정상 15세 미만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클로이 김도 2014년 소치대회에 나이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제라드도 10세 때 이미 성인 수준의 기술을 펼쳐 보였다.

리는 올림픽의 나이 제한을 자동차 경주에 비유했다. "연습용 카트를 잘 탄다고 13세 어린이를 포틀러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힐 수는 없다. 깃털처럼 가벼운 어린 선수가 강한 바람에 날려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과 경험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자 슬로프스타일의 결승전을 예로 들었다. 금메달은 28세의 제이미 앤더슨(미국)이 차지했다. 경험 많은 앤더슨에 비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어린 선수들은 바람이라는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어린 선수의 재능과 함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숙된 판단력이 균형을 이뤄야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